

### 사무엘상 18.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 (삼상 16 장 1-23 절)

#### 들어가기

전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시겠다는 계획을 사무엘에게 전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찾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며 회개할 것을 가르쳤지만, 사울 왕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완고함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뒤, 사울을 떠나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대신 슬퍼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로 인해 실망하며 오랫동안 슬퍼하는 사무엘을 책망하시며,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으로 삼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악령에 사로잡혀 고통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고, 그때 한 신하가 다윗을 추천하게 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 1. 하나님은 슬픔에 빠진 사무엘을 책망하시며,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위한 새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1-3 절)

1)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1 절)

- ✧ 사무엘이 사울의 버림받음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그저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
  - 아마도 사무엘은 버림받은 사울을 생각하며 극한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할 사역에 집중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하시고 다시 선택해 주시길 바라며 날마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 ✧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한가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과 판결은 아무리 사무엘이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련과 욕심 때문에 기도와 감정의 줄을 놓지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해도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바울, etc.)

2)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1 절)

- ✧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하나 -> 곧 막내 아들 '다윗'이었음 (13 절)
- ✧ 사울은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선택하신 왕!

#### ■ 주목 할 것 한가지 - 뿔에 담긴 기름 !

- ✧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 병에 채워진 기름을 사용(삼상 10:1)
- ✧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 뿔에 담긴 기름을 사용했다는 것!

- ✧ 학자들의 견해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 사울보다 더 든든하고 풍성하게 세워질 것이란 사실과 구원의 뿔로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라 해석..
- ✧ 참고: 사가랴의 예언 (세례요한의 아버지) - 누가복음 1 장 68-69 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3)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사무엘은 두려워하였습니다. (2-3 절)

- ✧ 이유는 - 만약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자신을 죽일 것이란 걱정 때문!  
- 대선지자 사무엘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
- ✧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 계획을 숨기도록 하셨습니다.

■ **생각할 것 ->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신가?**

- ✧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도록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그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공식적인 사역을 행할 것을 가르치신 것이고, 그 절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혜를 주신 것!
- ✧ 하나님의 일은 매 과정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결코 거룩한 명분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 오늘날 교회도 명분보다는 실리만 강조되는 시대 (ex, 교회 제정으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기?)

2. **하나님의 뜻대로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시키고, 이새의 가족들도 그 제사에 참석하게 하였습니다. (4-13 절)**

1) 갑작스런 사무엘의 방문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4-5 절)

■ **특별히 4 절 장로들의 말을 주목 :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 ✧ 아마 저들은 사무엘의 방문이 그 고장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기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던 것!
- ✧ 이것은 죄인의 특징을 잘 묘사한 것이 아닐까?

곧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할 때, 항상 두려워할 수 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2) 사무엘은 두려워하는 장로들을 안심시킨 뒤,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준비시켰습니다.

- ✧ 이때 사무엘은 **스스로 성결케 하여** 제사에 참여하도록 명하였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는 언제나 먼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준비된 맘으로 드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사무엘은 이 제사에 이새와 그 아들들을 참석시켜 택하심을 받은 자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 6-7 절 주목 ->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정확하게 찾지 못했다는 것!
  - ✧ 사무엘->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 ✧ 하나님-> 사무엘에게 ->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 >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 >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즉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 4) 사무엘은 이새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 올 때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 ✧ 평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우선순위에 놓고 감당하며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는 장면이 아닐까?
  - ✧ 사무엘 앞에 나타난 다윗은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기록!
  - ✧ 이보다 더 중요한 것 ->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고 명하셨다는 사실! (He's the one! Get up and pour the olive oil on his head.)

- 5)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 ✧ 더 이상 시골 목동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갈 자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심
  - ✧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심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확신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능력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3.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위해 다윗은 수금을 타며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14- 23 절)

- 1)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 왕은 악령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4 절)
  - ✧ 여기서 ‘악령’은 사탄을 의미!
  - ✧ 이는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닐까?

■ 생각할 것 -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란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 히브리 사상 -> 선과 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 ✧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악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사탄의 역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되어야만 된다는 뜻!. (ex. 에덴동산, 욥)
- ✧ 곧 사울이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악령(사탄)을 보내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셨다 (그냥 내버려 두셨다) 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
- ✧ 또한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그 어떤 악령도 그를 괴롭힐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음!

■ 참고: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내주하심의 차이

- ✧ 구약 -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역과 역사 속에서 선택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심
- ✧ 신약 -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2) 사울의 신하들은 왕의 마음을 달래고 병을 고치기 위해 음악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 당시에 병을 고치고,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음악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그런데 만약 저들이 정말로 충성된 믿음의 신하들이었다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고통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선지자 사무엘을 찾고, 제사장을 찾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어야만 했다는 사실!

우리도 살면서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볼 때에,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나 권면의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영혼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권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 사울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의 추천을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 주목 : 다윗을 추천하는 신하의 말 (18 절)

‘...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 ✧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다윗의 삶에 영육간에 강건함이 더하였고, 특별히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 주목 :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령이 떠나갔다는 사실!

- ✧ 다윗이 수금을 탈 때 했던 것 -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것!
- ✧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사울을 괴롭히던 악한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 다시금 찬송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음!
- ✧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생각하기:**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내 삶에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있다면?